

요시노 민화 지도

YOSHINO FOLKTALES WALKING MAP © 2014

나게시노타키(폭포)



1

개구리가 된 사람
요시노야마 산

2

요시쓰네가 숨은 탑
요시노야마 산

3

개를 기르지 않는 마을
구보가이토

4

은혜 갚은 늑대
와시카

5

아리도시묘진 신사
오무라

7

고보시미즈 샘
우노카와

6

이히카의 우물
이카리

8

오바가미네 산의 외발귀신
오바미네토우게 고개

9

가타로우의 약
쓰지도(불당)

고조시 오오토우초(마을)

오다이가하라(금)

발행 : 나라교육대학대학원 “지역과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감수 : 다케하라 다케시게 · 아오키 사토시
작화 : 마쓰다 게이코 · 야마자키 아야노 · 아오키 사토시

国立大学法人
奈良教育大学
NARA UNIVERSITY OF EDUCATION

지도의 민화 장소에서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1 개구리가 된 사람

입산이 허용되는 5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많은 사람이 오오미네야마 산에 참배하러 간다. 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참배를 갈 수 없었다. 오직 여름에만 갈 수 있었다.

오오미네야마 산에 참배하러 가는 길은 너무 가팔라서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길이 더욱 험해졌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험한 곳에서 참배한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라고 말하며 참배하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된 것인지, 절벽을 내려다보다가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요즈음과 같이 헬리콥터는커녕 아무것도 없던 때였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의 모든 스님이 모여 상의하여 그 사람에게 “구해주길 바라다면 개구리로 변신시켜 구해주도록 하지. 그 대신 참된 사람 이 되겠다고 약속하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반드시 참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스님은 그 사람을 개구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 사람은 개구리의 모습을 한 채로 푹푹팍팍 뛰며 절벽을 기어 올라가 살아났다.

스님들은 개구리를 자오도 불당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요시노에 있는 스님들이 모두 모여 함께 경전을 외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 덕분에 개구리는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참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자오도 불당에서는 7월 7일이 되면 ‘가에루토비(개구리 뽀)라는 행사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4 은혜 깊은 늑대

옛날에는 요시노에도 늑대가 살았었다고 한다. 어느 달 밝은 날 밤,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 아우우우- 하고 울었다. 계속해서 울자 어느 마을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 보았다. 나가보니 늑대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늑대의 입을 벌려서 들여다보니 목에 송곳니가 걸려있었다. 아마도 멧돼지를 먹고 나서 그 멧돼지의 송곳니가 걸렸었던 모양이다.

마을 사람이 “내가 목에 걸려있는 송곳니를 빼줄 테니 대신 나를 물거나 해서는 안 돼”라고 늑대와 약속을 하고, 늑대의 목에 걸려있는 송곳니를 빼주었다. 늑대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의 집 앞에는 매우 큰 멧돼지가 쓰러져있었다. “이건 늑대가 가져다 준 것이 틀림없어!”라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7 고보시미즈 샘

요시노의 가와카미무라 마을의 우노카와 라는 지역은 산 높은 곳에 있었다. 옛날에는 이곳에 우물이 없어서 물을 푸려면 산 밑의 다니카와 강까지 내려가야만 했다고 한다.

어느 더운 여름날에 고보대사가 여행을 하던 중, 우노카와까지 와서 어느 집에 들렀다. 그리고는 집 밖에서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와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곳에는 물이 없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나무통을 들고 산 밑의 다니카와 강까지 물을 푸러 갔다. 긴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는 대사께 물을 드렸다.

그러자 대사는 “땀까지 뻘뻘 흘리시며 물을 떠다 주시다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소,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드리지요.” 라고 하고는 그곳에 있던 바위를 지팡이로 세 번 내리치고는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차가운 물이 풍풍 샘솟아났다고 한다.

그 후부터는 마을 사람들은 다니카와 강에 물을 푸러 가지 않아도 그 샘에서 맛있는 물을 받아먹을 수 있게 되어, 더는 물로 인해 고생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 샘물을 고보시미즈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높은 곳에서 물이 샘솟고 있다고 한다.



2 요시쓰네가 숨은 탑(가쿠레토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동생으로 두 형제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시쓰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동생이 두려워진 요리토모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당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국 요시쓰네는 요리토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요시쓰네는 요시노야마 산에까지 도망쳐 와서는 요시미즈 신사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곳에 ‘요카와 가쿠한’이라는 자오도 불당의 스님이 쳐들어왔다. 요시쓰네는 사토 다다노부에게 도움을 받아서 벤케이와 함께 오클렌본으로 도망쳤다. 그곳에 엔노교자가 수행을 하기 위해 세운 탑이 있어, 두 사람은 그 탑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그곳의 탑들을 ‘숨은 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적들이 탑의 주변을 에워싸고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자, 요시쓰네는 탑 안에서부터 탑을 발로 차서 부수고 도망쳤다. 그래서 그 탑을 ‘부서진 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 요시쓰네와 벤케이는 아타카노세키 장벽을 넘어서 동북지역의 히라이즈미라는 곳까지 도망쳤다.

요시쓰네가 숨은 탑은 수행을 위한 곳으로서 지금까지도 오오미네야마에 참배를 하러 가는 사람들 모두 탑에 들어가서 금욕수행을 한다.

사람들은
요시노 깊은 산 속의 숨은 탑
본래 공(空)의 거처였을지니
온 아비라 운켄 소와카
라는 불경을 세 번 외고 기도했다고 한다.



3 개를 기르지 않는 마을

옛날에 오아마노 왕자가 오토모노 왕자와의 싸움으로 요시노에서 구보가이토 마을로 도망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오아마 왕자는 바바카와라 라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곳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미스키부네(배오양 나무통)를 뒹우려고 하고 있었다. 왕자는 그들에게 “지금 적들에게 쫓기고 있으니 날 좀 도와주게.”하고 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곧바로 배를 뒤집어엮어서 왕자를 그 안에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제물로 쓰일 도토리의 가루를 올려놓았다.

잠시 후 그곳에 뒹쫓아 온 적의 개들이 쿵쿵거리며 배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할머니가 “이 개들은 참으로 욕심이 많은 개군요. 신에게 바칠 제물을 먹으려고 쫓다니.”라며 화를 냈더니, 함께 쫓아왔던 적이 개에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해선 안 돼!”라고 말하며 개들을 죽였다. 그 덕분에 왕자는 살 수 있었다.

그 후로부터 구보가이토에서는 개를 기르지 않게 되었다. 그 개들을 받들어 이누즈카 라는 개 무덤을 만들고, 지금은 구보가이토에 있는 구즈초등학교의 정원에 있다고 한다.



6 이히카의 우물

옛날에 진무천황이 규슈에서 동쪽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요시노야마 산을 넘어갔다고 한다.

오던 도중, 산 중턱에 큰 삼나무가 있었는데 뿌리 부분에 우물이 있었다. 진무천황이 그 우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니, 우물 속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모두가 깜짝 놀라자 그 빛 속에서 꼬리가 달린 사람이 나와 진무천황 앞에 납작 엎드렸다. 진무천황이 “자네의 정체가 뭔가” 하고 묻자, 그 사람은 “저는 이 요시노야마 산에 사는 이히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황님께 길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진무천황은 기뻐하며 이히카에게 길 안내를 받으며 또다시 동쪽으로 향해 갔다고 한다.

그 우물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근처에는 이비카리자산 이라고 하는 절과 이히카 라고 하는 작은 사당이 있다.



9 가타로우의 약

옛날에 가모의 쓰지도 불당의 뒤에 엄청난게 큰 못이 있었다. 그곳에 가타로우(갯파)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절의 어떤 스님이 밤에 변소에 갔더니 가타로우가 밑에서부터 손을 내밀었다. 스님은 낮으로 그 손을 베어버리고는 도망가 버렸다.

그 다음 날 밤, 가타로우는 절에 가서 스님에게 “내 손 돌려줘!”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내 손을 돌려주면 아주 좋은 약 하나를 주지”라고 말했다. 그래서 스님은 약과 손을 서로 맞바꾸기로 하였다.

그 약이 바로 금초(錦草)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모야 라는 가게에서 그 약을 팔고 있다고 한다.

